

An aerial photograph of London, England, featuring the Big Ben clock tower and the Houses of Parliament in the center. The surrounding cityscape includes various buildings, green spaces, and a bridge in the foreground. The sky is overcast.

**영국, 주요 관광지  
12년 7/2 기준**

### 1. 버킹엄궁 ( Buckingham Palace )

- 버킹엄궁은 1837년 빅토리아 여왕 이후 영국왕 및 여왕의 런던 거소. 원래1703년에 건조된 버킹엄 공작 (Duke of Buckingham)의 사저였던 것을 조지 3세가 매입함.
- 600여 개의 방과, Queen's Gallery (왕실수집품 전시미술관) 등으로 구성

### 2. 총리 관저 ( No.10 Downing Street )

- 다우닝 가를 건설한 17세기 크롬웰 시대의 정치가이며 외교관이었던 조지 다우닝의 이름을 따서 명명
- 조지 2세가 당시 총리 월폴(Sir Robert Walpole)에게 관저로 기증, 1735년 월폴 총리가 입주한 이래 이곳을 총리 관저로 사용

### 3. 국회의사당 ( House of Parliament )

- 의회 민주주의의 산실, 영국 정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사당 건물은 원래 11세기 참회왕 에드워드를 위하여 궁전을 지은 것이 시초. 남쪽 부분은 하원, 북쪽 부분은 상원이 위치

### 4. 빅벤 ( Big Ben )

- 높이 98m, 시침의 길이 2.9m, 분침의 길이 4.2m이며, 시계의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아직도 손으로 태엽을 감아서 작동시키는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시계지기가 있음. 매 15분마다 타종
- 이름은 시계탑의 공사담당자였던 벤자민 홀(Benjamin Hall)의 앞자를 딴 벤(Ben)에서 유래

## 5. 웨스트민스터 대사원 ( Westminster Abbey )

- 잉글랜드를 정복한 노르만디 공 윌리엄이 1066년 이곳에서 대관식을 가진 이후 역대 영국 국왕이 이곳에서 대관식을 거행
- 역대 국왕 및 그 가족 32명과 영국이 배출한 위인들의 무덤 또는 기념판이 있음  
(아이작 뉴턴, 찰스 다윈, 헨델, 초서, 윈스턴 처칠 등)

### ※ 무명용사묘 소재

- 제1차 세계대전시의 영국군 전몰용사들을 기념하기 위해 1차대전중 전사한 영국군 무명용사 1인의 유해를 1920.11.11 당시 국왕 조지 5세 및 내각 각료가 참석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성당 내에 안치하면서 흑색 대리석으로 기념비를 건립함. 영국의 현충일은 이날을 기념하여 11월 11일
- 영국을 공식 방문하는 모든 외국 국가원수가 참배하고 화환을 증정

## 6. 성바울 성당 ( St. Paul's Cathedral )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성당으로 로마의 성 피에트로 성당, 피렌체의 두오모 성당과 함께 세계 3대 사원
- 이 성당에서 찰스 황태자와 다이애나 비가 결혼식을 올렸으며, 나이팅게일, 웰링턴, 넬슨 제독 등 영국의 위인들이 지하실 납골당에 잠들어 있음.

### ※ 한국전 참전 전몰용사비 소재

- 1987.3.11 영국 한국전 참전용사회의 주관으로 이 성당에서 추모비 제막식 행사가 엘리자베스 여왕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거행(추모비 석재는 우리나라 정부가 기증)

## 7. 타워 브리지 ( Tower Bridge )

- 런던타워 앞쪽에 있는 빅토리아식의 우아한 다리로서 1894년에 완성.
- 템스강이 밀물 때와 썰물때의 수심 차이가 최고 6m(다리와 강 수면과의 차이는 10m)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배들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설계

## < 템스강의 다리들 >

- 런던 브리지 : 런던 최초의 다리, 기원전 로마군의 런던을 점령시 건설
- 웨스트민스터 : 현존하는 다리 중 가장 오래된 다리로서(약 120년) 유일하게 가스등이 설치되어있는 다리
- 워털루 브리지 : 60년대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열연했던 영화 '애수'(원제목 :Waterloo Bridge)를 촬영했던 다리로서 당시의 다리는 낡아서 헐고 그 자리에 지금의 다리가 세워짐.
- 알버트 브리지 :빅토리아 여왕의 남편 알버트 공의 이름을 따서 만든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다리

## 8. 런던타워 ( Tower of London )

- 1078년 정복왕 윌리엄이 노르만디로부터 건너와 왕위를 차지한 다음, 런던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시티 지역에 세운 성
- 런던 타워는 모두 20개의 탑으로 이루어져 있고, 왕궁, 동물원, 화폐 주조창, 문서보관 창고, 감옥 등 그 용도가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변천되어 옴.
- ※ 이곳의 보석관(Jewel House)에는 현재 왕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보석들이 전시되고 있는데, 현 여왕의 소유인 다이아몬드는 536캐럿은 세계 최대의 것이며 여왕의 왕관에 있는 360캐럿의 다이아몬드는 세계 두번째로 큰 것임.

## 9. 대영박물관 ( British Museum )

- 1753년 한스 슬로안 경이 평생 수집한 골동품을 국가에 헌납하면서 설립. 상형문자를 해독하게 된 로제타 스톤 (Rosetta Stone), 헨델의 메시아 원본, 이집트의 미이라 및 라머니즈 2세 석상,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 대헌장 (Magna Carta), 셰익스피어의 친필원본,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본 등을 소장

### < 대영박물관의 한국실 >

- 대영박물관내 한국실 설치를 위해 국제교류재단에서 1992년 ~ 96년간 총 200만불을 지원
- 1997년 임시 한국실을 개설하였고, 2000.11.8 정식 개관
- 고려청자, 청화백자, 칠보자개함 등 국보급 자료와 조선시대 초기 작품으로 사천왕상 등을 전시 중

## 10. 국립미술관 ( National Gallery )

- 램브란트, 터너, 마네, 모네, 세잔느, 고흐등 19세기 거장들의 작품 전시.

## 11. 트라팔가 광장 ( Trafalgar Square )

- 국립미술관(National Gallery) 정면에 있는 트라팔가 광장은 1894년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의 승전을 기념하기 위하여 왕실의 마구간 자리를 닦아서 만듬.
- 매년 11월에는 제2차 세계대전 참전을 감사하는 뜻으로 노르웨이로부터 보내오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세워 놓으며, 매년 12월31일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여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장소임.

### ※ 넬슨제독 석상

광장 중앙의 넬슨 제독 석상은 높이가 52m이고 석상의 네면에는 큰 청동 사자상이 있는데, 이것은 프랑스군으로부터 노획한 대포를 녹여서 제작

## < 런던의 새로운 상징, 런던아이 ( London Eye ) >

일명 밀레니엄 휠 (Millennium wheel)이라고도 불리며 템즈강변에 위치한 자전거바퀴 모양의 거대한 회전 전망대. 특히 런던 시내 야경 감상에 최적. 탑승시간 30분, 요금은 11.5파운드.

## < 런던 방문객 센터 >

- 소재지 : 1 Regent Street, London SW1Y 4XT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은 피카딜리 서커스역
- 개장시간: 월~금 : 09.30 - 18.30, 주말 : 10.00 - 16.00

런던을 포함한 영국전역의 여행, 관광, 극장과 유흥업소 입장권구입도 알선 해 줌. 웹사이트는 [www.visitbritain.com](http://www.visitbritain.com)

## 12. 런던 교외 주요지

### 가. 윈저성 ( Windsor Castle )

-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주말 휴식처. 그 곳에 왕실 깃발이 게양되어 있으면 여왕이 성안에 머무르고 있다는 표시

### 나. 이튼 칼리지 ( Eton College )

- 1440년 헨리 6세에 의해 주변 마을의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되어 70명의 장학생들이 4개의 기숙사에서 공부한 것이 이튼 칼리지의 시초. 웰링턴 장군도 이튼 출신으로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전장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이튼의 교정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언급

### 다. 그리니치 ( Greenwich )

- 경도 0도, 표준 자오선이 지나는 천문대가 있으며 런던 시내로부터 7km 정도 동쪽의 템스 강가에 위치
- 천문대 입구의 대형 시계는 120년 된 것으로 국제 표준시를 알려주고 있음.

### 라.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 Oxford & Cambridge )

- 유서깊은 대학가 도시로서, 런던에서 2시간 정도 소요

### 마.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븐 ( Stratford Upon Avon )

- 런던에서 북쪽으로 160km 떨어진 이곳은 '인도와도 바꿀 수 없다'라던 세계의 문호 셰익스피어(1564-1616)의 고향으로서 생가와 무덤이 있음.

## 바. 블렌하임 궁 ( Blenheim Palace )

- 윈스턴 처칠 총리의 선조인 말보로 공작 (Duke of Malborough)의 사저. 특히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인 처칠 총리가 1874년 이곳에서 출생

## 샤. 바스 ( Bath )

- 로마시대의 온천이 남아있는 곳으로 영국내 유일한 온천지. 런던에서 서쪽으로 약 2시간 소요

## 아. 스톤헨지와 솔즈버리 ( Stonehenge & Salisbury )

- 선사시대의 환형 돌무지 유적. 런던에서 1시간 30여분 소요

출처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 081014 )

도셋과 동부 데본 해안 - 쥐라식 해안 - 세계 문화 유산지 -

쥐라기 해안(The Jurassic Coast)으로도 알려진, 도셋(The Dorset)과 동부 데본 해안(East Devon Coast)은 '자연' 세계문화 유산지역이 세계 최초로 새겨진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동부 데본(East Devon)부터 도셋(Dorset)에 이르기까지 약 95마일 넘게 펼쳐진 아름다운 해안선과 모든 종류의 유명한 화석들을 품고 있는 곳입니다.

이 해안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해안 절벽이 지질학적으로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그리고 백악기까지, 거의 모든 연대기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지구 역사의 1억 8500만년을 담고 있는 타임 캡슐과 같습니다. 이 지역의 중요한 화석 지대와 해안 지형학적 특성은 지난 300년간 지구과학 연구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 숙박시설과 지역 명소, 행사로 가득한 그림 같은 게이트웨이(Gateway) 타운과 마을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정된 게이트웨이(Gateway) 타운은 쥐라기 해안 보존 및 여러 명소와 연계되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게이트웨이(Gateway) 타운과 마을:**

쥐라기 해안의 서쪽 입구에 위치해 있으며, 영국의 가장 오래된 리조트 중의 하나입니다. 2마일에 달하는 금빛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는 이 곳은 수영, 골프, 유원지, 보트, 수상스키 등 다양한 해양 스포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버들리 샬터튼(Budleigh Salterton)** - 그림 같은 별장과 역사적인 조형물 그리고 환상적인 빨간 절벽 아래의 조약돌이 빛나는 해안에서 편히 쉴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을입니다.

**시드머스(Sidmouth)** - 아름다운 정원과 그림 같은 산책길, 섭정시대 역사가 여전히 숨쉬고, 티없이 맑은 해안이 펼쳐진 이곳은 그야말로 옛 것의 매력을 간직한 곳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국제 포크 페스티벌(International Folk Festival)이 열리는 여름에 꼭 방문해 보세요.

**비어(Beer)** – 한때는 밀수지역으로 악명을 떨치기도 했지만, 이곳 항만은 자연이 만들어낸 만으로, 백색 절벽 아래 아름답게 수놓아진 조약돌 해변이 양지바르게 펼쳐진 그림 같은 곳입니다.

**시튼(Seaton)** – 이 해변가 마을은 인간의 발이 닿지 않은 액스 밸리(Axe Valley)의 데본 지역 남동쪽 끝에 한적하게 자리잡은 곳입니다. 각종 수중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마을 어귀에서 내륙까지를 이어주는 특별한 전차선로가 놓여있습니다.

**라임 레지스(Lyme Regis)** – 이곳은 도싯(Dorset)과 데본(Devon)이 만나는 지역으로, 자연경관 우수 지역(Area of Outstanding Natural Beauty)안에 위치한 아름다운 해변 마을입니다. 좁은 마을 길을 찾아 예쁜 가게들을 지나면, 유명한 13 세기의 코브 항만(Cobb harbour)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차머스(Charmouth)** – 이곳은 화석을 찾으러 가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해안지역입니다. 화석 및 이 지역 자연 역사에 대해 관심이 있으시다면, 세계 최대 조약돌 해변과 해안지구에 위치한 유적해안센터(Heritage Coast Centre)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웨스트 베이(West Bay)** – 이곳은 동쪽에서 서쪽을 가로지르는 깎아지른듯한 아름다운 절벽 사이에 위치한 항만 마을입니다. 웨스트 베이(West Bay)로 이어지는 19세기 해안지구는 영국의 유명한 드라마인 하버 라이트(Harbour Lights)의 배경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포틀랜드(Portland)** – 이 곳은 오직 도보로만 갈 수 있는 신비로운 섬마을 입니다. 해안과 섬 사이를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오솔 길을 거닐다 보면, 다양한 섬의 특성을 하나하나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놀라울 정도로 멋진 광경 역시 덩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웨이머스(Weymouth)** – 이곳에서는 역사적인 건물과 조지아 왕조시대의 해안지구에서부터, 현대식 마을까지, 그리고 전통 펍에서부터 현대식 바와 레스토랑까지 전통과 현대 모두를 볼 수 있습니다. 웨이머스는 겨울이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영국에서 일조량이 가장 높은 햇빛이 따듯한 지역입니다.

**스와니지 (Swanage)** – 가족과 함께 하기 좋고, 수상까지 한 아름다운 해변과 안전한 일광욕, 그리고 다양한 레저활동과 계절에 상관없이 방문하기 좋은 명소들, 가족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유흥시설과 아일랜드와이트의 니들즈(the Needles on the Isle of Wight) 지역을 가로지르는 아름다운 광경까지 모든 것을 갖춘 곳입니다.

**웨어햄 (Wareham)** – 2,000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지역은, 알프레드 왕(King Alfred the Great)이 바이킹의 공격으로부터 마을을 지키기 위해 흙으로 만든 장벽으로 외곽을 둘러쌌던 곳입니다. 여전히 그 장벽의 잔해를 볼 수 있으며, 이곳을 방문하시면 색슨족 시대로 여러분들을 안내합니다

출처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 120702 )

## 블렌하임 궁전 - 윈스턴 처칠의 생가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출생지로도 유명한 영국 옥스포드(Oxford) 인근 블렌하임 궁전(Blenheim Palace)은 일명 캐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이라 불리는 유명한 조경학자가 설계한 2,100 에이커에 달하는 넓은 공원에 자리잡고 있으며, 18세기 주거형태를 거의 완벽히 복원한 곳입니다.

옥스포드셔 코츠월즈(Oxfordshire Cotswolds)에 위치한 블렌하임 궁전(Blenheim Palace)은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가장 화려한 궁전으로 손꼽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앤 여왕(Queen Anne)이 말버러의 1대 공작(Duke of Marlborough)에게 1704 블렌하임 전투(1704 Battle of Blenheim)에서 프랑스군을 무찌른 그의 유명한 승리에 감사를 표하며 하사한 저택입니다.

현재 11대 말버러 공작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며 소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궁전 내부에 자리잡은 큰 거실(State Rooms)에는 융단, 회화 그림, 도자기 및 가구까지 다양한 수집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1874년에 윈스턴 처칠 경이 태어난 방 옆에는 그에 관한 상설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처칠(Churchill) 경은 블렌하임(Blenheim) 궁전을 정말 사랑했고, 가족으로서 평생 자주 궁전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후 궁전 가까이 있는 블레이든(Bladon) 교회에 묻혔습니다.

이 곳의 방문객들이 꼭 선물 받은 것처럼 좋아하시는 곳이 바로 '영국이 낳은 최고의 조경학자' 캐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이 설계한 주변 정원들입니다. 2,000에이커에 달하는 아름다운 공원 단지, 호수, 분수 그리고 최근 복원된, 시크릿 가든(Secret Garden), 이탈리아안 가든(the Italian Garden), 워터 테라스(the Water Terraces), 장미 정원(Rose Garden) 그리고 폭포(Cascade)까지 다양한 정원의 아름다움을 발견해 보세요.

## 꼭 보거나 해야 할 것들

**미니어처 기차 탑승** – 남녀노소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이 미니어처 기차는 블렌하임 궁전에서부터 플레저 가든(the Pleasure Gardens)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플레저 가든(the Pleasure Gardens)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미가 가득한 말보로 메이즈(Marlborough Maze), 버터플라이 하우스(Butterfly House), 라벤더 가든(Lavender Garden)과 ‘블렌하임 회고전’(‘Blenheim Bygones’ exhibition) 등 다양한 장소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마상 창 시합대회** – 블렌하임 궁전 바로 앞의 사우스 론(the South Lawn)에서 재현되는 마상 창 시합대회의 자세한 일정을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세요. 매 사냥, 바비큐, 진의 일종인 핼스(Pimms)를 마실 수 있는 텐트 등이 여러분의 하루를 가득 채워 줄 것입니다.

**블렌하임 궁전 (Blenheim Palace)** -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 예전에 일반인들에게는 전혀 공개된 적 없었던 궁전 일부에서, 최신식 영상 프로젝터와 스크린 기술을 이용, 블렌하임 궁전의 알려지지 않는 이야기를 담은 설치품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원 투어** – 많은 이들이 블렌하임 궁전(Blenheim Palace)의 정원이야말로 캐퍼빌리티 브라운(‘Capability’ Brown)의 최고 업적이라고 말합니다. 베테랑 정원 투어 가이드와 함께 정원을 거닐다 보면, 모든 정원마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 120702 )

## 캔터베리 대성당 - 세계 문화 유산 유적지

캔터베리(Canterbury) 지역은 지난 5세기 동안 영국 국교회(the Church of England)의 본산지이자, 중요한 종교적 건물과 기념비적인 건축물들이 산재해 있는 곳입니다.

캔터베리 대성당(Canterbury Cathedral)은 약 1,400년 전인, 서기597년에 건립되었으며, 성공회 연합의 모교회(the Mother Church of the Anglican Communion)이기도 합니다. 성당 내부에는 수직 양식의 신도석이 있으며, 12세기 고딕 양식의 좌석과 화려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이 로마네스크 양식의 성당을 수놓고 있습니다.

대성당은 1170년에 토마스 베크트 대주교(Archbishop Thomas Becket)가 순교한 곳으로, 그의 성지는 런던(London)에서 윈체스터(Winchester)까지의 순례 길을 따라, 중세시대 순례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교회가 바로 현재 절반 정도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중세시대 성벽 외곽에 위치한 세인트 마틴 교회(the Church of St Martin)입니다. 약 4세기에 로마식 교회로 건축된 세인트 마틴 교회는 현재도 여전히 교구 교회로 사용되는,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성 어거스틴 수도원(St Augustine's Abbey)은 방문하지 못 하고, 지나치게 되는데, 이는 도시 중심부 외곽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수도원은 한때 대단한 수도원이었으나 현재에는 폐허가 되어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 꼭 보거나 해야 할 것들

**캔터베리 테일즈 경험(The Canterbury Tales Experience)** – 중세시대로 돌아가 그 당시의 풍경, 소리 그리고 냄새까지 시청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 곳은 14세기 영국을 똑같이 재현한 곳입니다.

**캔터베리 웨스트 게이트 타워 (Canterbury West Gate Towers)** – 1380년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운 중세시대 최고의 대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캔터베리의 전쟁사에 관한 전시회를 구경하고 타워 안의 감옥도 방문해 보세요.

[켄터베리 웨스트 게이트 타워 \(Canterbury West Gate Towers\)](#) – 1380년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세운 중세시대 최고의 대문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서 켄터베리의 전쟁사에 관한 전시회를 구경하고 타워 안의 감옥도 방문해 보세요.

[켄터베리 로마 미술관\(Canterbury Roman Museum\)](#) – 로마 켄터베리 지하에 위치한 미술관으로써, 발굴된 실제 유물과 건축물, 컴퓨터 합성 이미지와 같이 실제 크기로 재현한 전시품들이 있습니다.

출처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 120702 )

## 큐 왕립 식물원- 세계 문화 유산지

영국 왕립 식물원(The Royal Botanic Gardens)은 런던 남서지역(South West London)의 리치몬드(Richmond)와 큐(Kew) 사이를 흐르는 템즈 강가(the River Thames)에 자리한 아름다운 런던의 명소입니다.

Kew Gardens, London Source:Roger Quayle 식물원은 약 300에이커가 넘는 규모에, 250여 년간 수집한 각종 식물 컬렉션(보호 식물, 야생 식물과 기록물)이 있습니다. 17세기 이후, 큐(Kew) 지역에는 이미 식물원이 있었지만, 왕립 식물원(the Royal Botanic Gardens)이 공식 오픈 한 해는 1759년입니다. 이후 식물원은 식물의 다양성과 실용 식물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습니다. 현재 큐(Kew) 지역에만 약 100여종의 식물을 보유하고 있는 아쿠아틱 가든(the Aquatic Garden)에서부터 윈터 가든(the Winter Garden)까지 26개의 식물원이 있습니다. 이 식물원 안에는 전 세계에서 수집한 다양한 식물 모종이 자라는 6개의 온실이 있습니다.

1844-1848년에 지은 팜 하우스(Palm House)는 식물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열대나무, 관목, 코코넛, 바나나, 망고 나무를 포함한 각종 야자수가 자라고 있습니다. 템퍼릿 하우스(Temperate House)는 세계 최대규모의 장식용 온실로써, 호호바와 같은 아열대 식물 그리고 세계 최대규모의 온실 식물인 칠레 와인 나무 등이 수집되어 있습니다.

큐 궁전(Kew Palace)은 17세기에 지어진, 왕립식물원 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며, 조지 3세(King George III)와 샬롯 여왕(Queen Charlotte)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광기로 악명을 떨쳤지만, 현재는 신경질환의 일종인 포르피린 증을 앓았다고 추정되는 조지 왕이 병상에 있었을 때, 이곳은 그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이 곳은 꽤 많은 왕족들이 거처한 곳이기에, 조지 왕(King George)이 말년에 입었던 조끼, 샬롯 왕비(Queen Charlotte)가 죽음을 맞이했던 의자 등 왕실 물품이 궁전 안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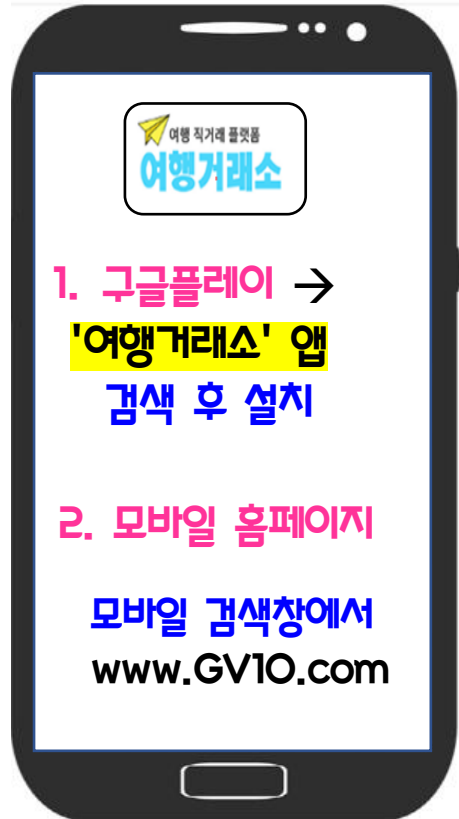
## 꼭 가봐야 할 곳들:

**햄튼 코트 궁전 (Hampton Court Palace)** – 헨리 8세(Henry VIII)가 머물렀던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튜더(Tudor)궁전을 방문해 보세요.

**리치몬드 공원 (Richmond Park)** – 런던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야외 공간에서 기분 좋은 하루를 보내보세요. 찰스 1세(King Charles I)가 사냥을 하던 이 공원에는 한적하게 노니는 붉은 사슴 떼가 풀밭과 나무 사이를 뛰어다니는 모습을 목격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주 영국 한국 대사관 ( 120702 )

## 갤럭시 폰에서



**모바일 검색창에서**  
**모바일 홈페이지**  
[www.GV10.com](http://www.GV10.com)

- 최신 각국 출입국 정보
- 다양한 여행상품 원가 정보
- 항공상식 및 항공사 정보
- 현지 생생정보
- 여행관련정보를 가장 빠르게
- 맞춤정보를 고객에게 전달하세요 !!

## 아이폰에서

